

코스피	7981.41	코스닥	1191.09
	(+137.40)		(+14.16)
금리	3.654	환율	1488.55
	(+0.019)		(-2.05)

경주 방패장 가보니
지진·산불도 견뎌
300년간 '철통방어'
04



美 국채 지옥문 개방... 글로벌 금융불안 고개

삼성 "대화하자" 손 뿌리친 노조 '긴급조정권' 거론

고금리의 습격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연 5%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 벽을 넘어설 데세다. 시장에서는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금리 발작' (금리의 비정상적 급등)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속에서 치솟는 금리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부담이다. 외국인 자금도 더 높은 금리를 쫓고 있어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

◆美 국채 금리 '마지노선'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미국채 입찰 결과 낙찰 금리가 5.046%로 결정됐다. 발행시장에서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채 30년물이 19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미국채 30년물 금리 5% 넘어서 19년 만에 최저가로 낙찰된 셈 국내 10년만기 국채금리 4%대 경기회복 더더... 개인·기업 부담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정부 재정 악화, 유럽에 이은 중동에서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전쟁 발발 직전 4.63% 수준에서 13일 5.03%로 0.40%포인트 올랐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미국 주택 구매자들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우량 회사채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채 30년물 금리 5%를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하고, 채권 금리가 이 문턱을 뚫을 경우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급등세(채권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4.47%까지 뛰었다. **(2면에 계속)**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본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대만 처리 잘못하면 충돌" 트럼프에 경고

〈시진핑 中 국가주석〉

美·中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년 만에 1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신형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양국 간 공존을 강조했다. 또,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

14일 외신을 종합해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大國)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함께 써내려 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형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고 주장한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제를 재정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5B'와 중국 측이 원하는 '3T'로 분석했다. 5B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쇠고기·콩 구매,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 설립을 의미한다. 3T는 관세, 기술, 대만등을 뜻한다. /최규춘 기자 ch9720@

내란세력 척결 vs 정권 견제 '표심 공략'

6·3 지선 오늘까지 후보등록

시·도지사 비롯, 자치단체장 등 선출권 정부 출범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

6·3 지방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접어든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며, 부산북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

궐선거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6면〉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이 어떤 후보자를 뽑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각각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선 준비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

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까지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국공립어린이 집 더 확충" /사진 뉴시스
▲정동영, 탈북 아동·청소년에 서한... "평화로운 한반도 밀거름"

▲추미애 "경기북부를 첨단 거점으로"...항공·우주·MRO 공약
▲송언석 "정원오, 본인 폭력 미화 위해 5·18 민주화운동 이용"

▲국힘 "박상용 징계 사유 '언어 솔파티'는 결국 거짓"...與국조특위 고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野 현수막에... "그래서尹 갔다" 맞불

국세수입·연기금 수익 증가... 나라살림 적자 6년만에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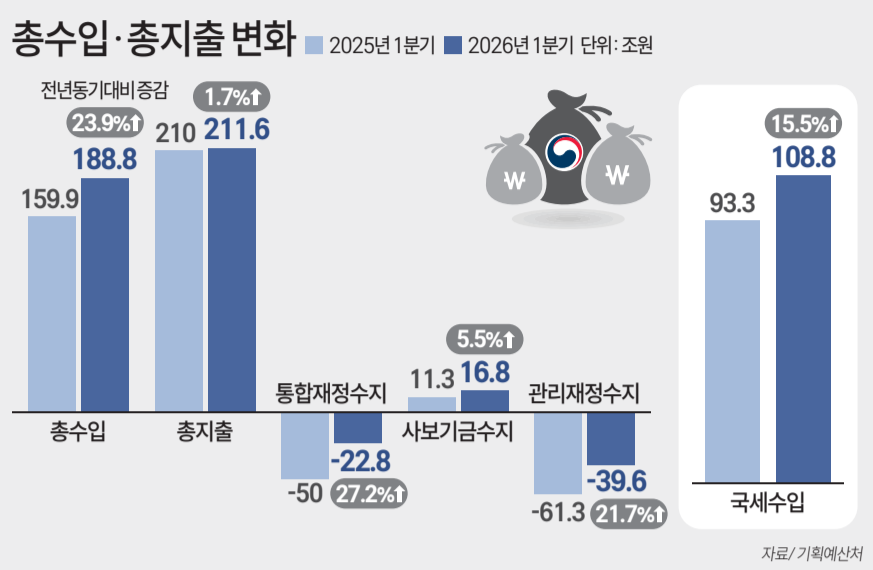
기획예산처 월간재정 동향

3월말 기준 총수입 188.8조
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21.7조 감소

국가 재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을 비롯해 연기금 투자수익 등이 불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8조9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수입이 1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또 성



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조 원 증가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8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총수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늘어난 국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라며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기금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1~3월) 총지출은 211조6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1조3000억 원)이 비해 21조7000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로 보면 역대 9번째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9조 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35조4000억 원 늘었다.

국채시장 금리는 중동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및 1분기 경제성장률(+1.7%)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595%, 10년물은 3.923%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월 누계 발행량이 84조1000억 원에 달하며 연간 총 발행한도의 35% 이상을 소화했다.

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4월 말 기준 312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대한민국 포항

수소경제의 중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수소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포항 수소산업의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 실현

주요 정책

- 수소특화단지 조성
-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
- 수소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 에너지 벤처 펀드 운영

“정부·한은 공조 통해 금리충격 흡수해야”

>> 1면 '美 국채 지옥문...서 계속

◆금융불안 기폭제 될 수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여파가 다른 나라 금리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채권 투자의 수익률도 하락했다. 지난 13일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0.57%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장중 연 5.13%까지 올랐다. 2008년 6월 30일(연 5.13%)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도 각각 연 2.59%, 연 3.10%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션와이드의 벤 에이어스 이코노미스트는 "투입 가격의 급등은 5월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맴보들은 장기간 금리 동결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발 '고금리의 습격'은 가계 및 기업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경제에 특히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잔액은 2479조7879억원이다. 이 중 주택대 잔액이 771조9650억원으로 31.1%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대

출(26.6%), 개인사업자대출(18.5%), 대기업대출(12.7%), 신용대출(9.6%) 순이었다. 가파르게 뛰고 있는 국내 금리가 불안한 이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하 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대(14일 기준 연 4.085%)에 올라섰다.

경기 회복 속도마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이 국내 금융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인은 최근 6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덕분에 코스피는 하루에 수백 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을 책임진 정부와 통화를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발 금리 충격을 흡수할 정책 조항을 찾아내 실업율을 견뎌야 할 지대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통해 외환방파제도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톡 베네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여야 잠룡 참전

>> 1면 '내란세력 척결'서 계속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이달 28일부터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

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여야의 잠룡까지 포스트 선거정국의 주도권까지 바라보며 참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수를,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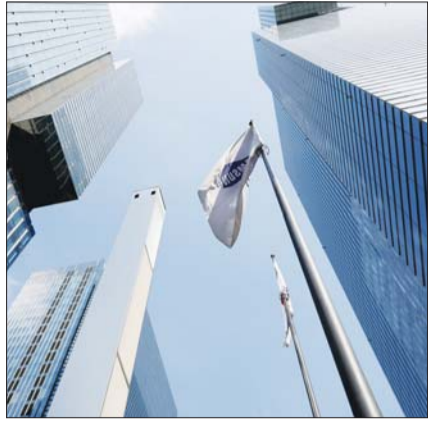
/서예진 기자 syj@

삼성전자 총파업... 반도체 '필수공정' 가동 여부가 변수

수원지법, 20일까지 가처분 판단
반도체 공정 안전보호시설 쟁점

사측 "안전인력 이탈엔 사고 우려"
노조 "적법한 쟁의행위 진행" 반박

삼바 선례 따라 일부 인용 가능성
결과 따라 총파업 동력도 출렁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 가처분 결과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총파업 향방이 갈리는 가운데 노동법상 파업 중에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필수공정' 규정이 이번 가처분의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전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21일 총파업 예고일 이전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앞당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 시설이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이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를 대량 취급하는 만큼 안전인력이 이탈할 경우 중대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평택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 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를 들어 생산시설 운영 중단 시 손실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시설이 멈춘 사례는 드물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조·기

술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 직후 "협박이나 폭행, 생산시설 점거는 없을 것"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변질 방지 방법은 많다.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업계가 이번 가처분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용되면 노조 쟁의행위가 위법이 되고 기각되면 파업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며 "인용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파업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 돼 총파업 동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 중에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는 작동해야 하고, 원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반도체 공정 중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필수작업공정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에도 가동해야 한다는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료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유지 작업만 허용 하되 신규 생산 공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가처분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도 파업 시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 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노조에 공식 제안했다.

김재원 초기업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현재로서는 협상 계획이 없다"며 거부하면서도 "성과급 투명화·상한폐지·제도화 안건이 있으면 대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총파업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시선이 법원에 쏠려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정의선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로비 스토리 타운홀에서 새 로비 기획에 참여한 담당자들과 함께 토크 세션을 진행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빠르게 배우되 안전·품질 강화” 정의선, 미래차 경쟁해법 제시

〈현대차그룹 회장〉

양재사옥 타운홀서 전략 공유
테슬라·BYD 학습 필요 강조
자율주행 경쟁 속 안전 최우선

“빠르게 배우되 현대차만의 강점인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진행된 ‘로비 스토리 타운홀’ 행사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데 있어 ‘기술과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경계와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 세계 어느 회사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며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능과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긴장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토차이나 2026’ 행사장을 방문해 BYD를 비롯해 화웨이, 지리차, 샤오미 등 주요 업체들의 부스를 둘러봤다. 정

회장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중국 분들은 기술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크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많아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모빌리티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경쟁과 관련해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은 중국과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웨이모도 잘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에 광주에 200대의 자율주행차를 선행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기술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밝혔다. 정 회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신기술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 경쟁 차종을 겨냥하기 보다는 현대차와 기아가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오늘의 당신이 걱정 없도록, 내일의 당신이 든든하도록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무)을 선물하세요

간병 부담 덜어주는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무)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간병인지원금특약]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해당 특약의 '간병인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3061호 (2026-04-09 ~ 2027-04-08)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6-04-2025

www.hanwhalife.com

7.0 강진·산불에도 ‘이상무’... 300년간 ‘철통방어’ 나섰다

Q 르포 | 경주 방폐장 ‘2단계 콘크리트 요새’ 가보니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동해안로를 따라 굽이진 언덕을 오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세로 각 20m, 높이 10m 크기의 방폐물 처분고 20개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을 향후 300년간 안전하게 품게 될 요새다.

지난 1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이곳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이어 약 11년 만에 새로운 처분 시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한 부지에 동굴처분과 표층처분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 처분 역량을 갖추게 됐다.

◆ 이동식 셸터가 만드는 철벽 방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해수면 이하 80~130m 아래에 있는 6개의 사일로(Silo)에 중·저준위 폐기물로 채워진 200l 또는 320l의 드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방폐물을 처리했다면 2단계는 저준위 이하 방폐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활용된다.

이곳에 처분되는 폐기물은 원전 작업복, 장갑, 필터, 교체된 설비 배관 등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폐기물들이다.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은 지하 130m 아래 동굴(사일로)에 넣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폐기물은 지표면 근처에

처분함으로써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다.

방폐물을 담은 드럼이 이 요새에 안치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밀한 외과수술처럼 진행된다. 저준위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 거대한 ‘이동형 크레인 셸터(MCS)’가 처분고 상부를 완전히 덮어 비를 막는 지붕 역할을 한다. MCS 내부의 크레인이 드럼을 하나씩 들어 올려 처분고 바닥에 오차 없이 안치하면, 드럼 사이의 빈 공간을 시멘트 풀인 ‘그라우트’로 메워진다.

기존 동굴처분시설이 있으나 지표면에 또 다른 처분시설을 만든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방사능 농도는 낮지만 오염됐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 버릴 수 없는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땅속 깊은 곳에 폐기하지 않아도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표층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폐기물 채우면 ‘거대한 고분’으로

2단계 시설은 200l 드럼 기준 12만 5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 연말까지 4000드럼 처분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연간 처분량을 1만 2000드럼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전경.

KORAD,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 세계최초 동굴·표층시설 동시 운영

2050년까지 처분고 가득 채우면 흙으로 구조물 덮어 5m 봉분 만들어 이후 300년 방사능 수치 모니터링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차가운 콘크리트 외벽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든 처분고가 가득 차 밀봉이 완료되면 이 시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조물 위로 약 5m 두께의 흙을 덮어 봉분 형태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경주의 거대한 능(陵)과 같은 모습으로 자연 속에 동화되는 셈이다.

이후 시설 폐쇄 후에도 300년 동안 제도적 관리가 이어진다. 공단 관계자는 “세움이 반감기를 다 거쳐 자연 상태의

자연방사능과 똑같아지는 시기가 300년이 걸린다”며 “시설 폐쇄하고 300년 동안 주변의 물이라든지 공기 중에 방사능 수치가 얼마 이상 높아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말했다.

◆ 5중 차단·수막 타워, ‘K-방폐장’ 안전

지상 시설인 만큼 지진이나 산불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공단은 드럼, 뒷채움재, 처분고, 덮개, 암반으로 이어지는 ‘5중 다중차단 구조’를 통해 규모 7.0의 강진에도 안전을 자신했다.

시설 지하에는 작업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점검로가 그물망처럼 뻗어 있다. 지하 점검로에는 배수설비, 공조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폐액 등이 배관을 타고 지하 점검로를 통해 집수조 탱크에 모이면 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산불 발생을 대비해 반경 40m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세종=한용수 기자

수막 설비도 갖춰 화마 접근도 원천 차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은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저희는 같이 있으니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고, 향후 원전 수출 시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 중 하나”라며 “우리 기술로 건설한 2단계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폐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토큰증권 안착 위해 유동성 확보 등 필수”

한은, 글로벌 토큰화 규모 504억 달러 아직 관련시장 작지만 성장속도 빨라 발행·유통·결제 분산원장 통합처리 결제 주기 줄이고 중개·관리비 낮춰 신뢰도 향상,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 시장 안착을 위해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자산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토큰화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50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자산토큰화는 부동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대출채권 등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토큰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은 아직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작지만 성장 속도는 빠르다. 연간 성장률은 2023년 65%, 2024년 93%, 2025년 169%로 확대됐다. 자산토큰화는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신용자산 토큰이 256억 5000만달러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M

MF·국채 기반 토큰은 142억 6000만달러로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자산토큰화 규모는 341억 달러로 전체의 65.2%에 달했다. 유럽과 규제피난처가 각각 14%대 비중으로 뒤를 이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국내에서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의 조각투자에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업체 발표자료와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파악한 국내 조각투자 누적 규모는 올해 1월 기준 약 6400억원 수준이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올해 2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분산원장이 기존 중앙집중식 전자증권 장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고,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근거도 마련됐다.

한은은 자산토큰화가 거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의 발행·유통·결제 과정을 분산원장에서 통합 처리하면 결제 주기를 줄이고 중개·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고가 자산을 쪼개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넓히고, 거래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

대된다.

다만 금융안정 리스크도 함께 제기됐다. 토큰화 자산은 24시간 거래와 빠른 환매가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시간과 결제주기 제약을 받는다. 시장 불안 시 토큰화 자산과 기초자산 사이의 유동성 불일치가 대량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큰화 자산이 담보로 반복 활용될 경우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결이 강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인 단기 국채와 예금 등 전통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

한은은 국내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우선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가치평가, 수탁, 공시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오프체인 통합 모니터링, 조기경보 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자산으로는 화폐의 단일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 화폐나 은행 예금을 우선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규제 준수와 상환 가능성, 준비자산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주식 가격 알려줘”... 지능형 비서와 동행

AI 집약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자사 최초 ‘플레오스 커넥트’ 적용 내적인 성장, AI 경쟁력 등에 방점

#. “글레오 현대차 주식 가격과 전망은 어때?” 라고 질문하자 이처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보다 증권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좋다고 안내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세단 ‘더 뉴 그랜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대차가 자사 최초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하며 그랜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지난 13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공개된 더 뉴 그랜저는 지난 2022년 11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 여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겉모습보다는 내적인 성장, AI 경쟁력,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 뉴 그랜저의 외관은 기존 모델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선과 면의 디테일을 정교하게 다듬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다만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면 그릴의 포인트를 키우는 것과는 반대로 더 뉴 그랜저는 크기를 줄였다.

실내는 안락함과 하이테크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17인치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그랜저 미디어 데이 현장에 전시된 더 뉴 그랜저. /양성운 기자

중앙 디스플레이는 기존 대비 압도적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더 뉴 그랜저에 탑재된 플레오스 커넥트는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의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인 ‘글레오 AI(Gleo AI)’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맞춤형 운전자 경험을 선사한다.

또 현대차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AAOS)를 토대로 플레오스 커넥트를 개발해 구조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차량 내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했다. 우선 ‘전동식 에어벤트’를 처음 탑재했다. 기존 돌출형 송풍구 조작부를 없애고 히든 벤트를 적용해 실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현대차 최초의 ‘스마트 비전 루프’는 기계식 블라인드 대신 PDLC 필름을 적용해 루프 투명도를 6개 영역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개방감은 물론 열 차단 성능까지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24년 동안 시대를 비춰온 빛,
메트로신문의 창간을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축하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정청래 울릉도·장동혁 충청... 여야, 지역 민심 확보 총력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서 첫 방문 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성 등 강조
장동혁, 3일 연속 충청권 찾아 5·18 추모식 참석 가능성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북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주민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월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방선거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 걸음이 분주하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울릉도의 홍보대사가 되겠다. 울릉도를 두 번째 지역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주민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울릉도에 와서) 제일 먼저 접한 말은 가슴 아프게도 ‘아프더라도 날씨 좋은 날 아파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기후 여건에 따라서 아프더라도 육지에 나가서 치료받기 어렵

다는 상징적인 말”이라며 “(울릉도로 이동하면서) 크루즈를 타자마자 울릉도를 오가는 배편과 교통편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릉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도민 8900명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주민들로부터 어업 활동 시 경제적 부담, 배편과 체육 시설 부족 등의 애로사항과 독도를 할

용한 관광사업 개발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울릉도에 와서 (도민들의) 구구절절하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제가 울릉도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분주하다. 장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사흘째 충청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선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영남·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전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 나성동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최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은 데 이어 3일 연속 충청권을 방문하는 셈이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이 고향이자 지역구라는 점에서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장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을 훑은 이후 보복을 넓혀 호남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열리는 전

북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맞춰 광주에 방문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출범한 중앙 선대위가 사실상 장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을 비롯해 중도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시켰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선대위 첫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우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장 대표 원톱 체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심지어 분부장급에는 본인과 사이가 껄끄러웠던 사람은 단 한명도 안 들어갔다. 이게 무슨 원팀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를 촉구하면서 대외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등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kbm@metroseoul.co.kr

1인당 투표용지 7장... 재·보선 지역은 8장

李 대통령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6·3 지방선거 어떻게?

용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배부 선거별로 색깔 달라 혼선 방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 때 투표나 기호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여기에 1장을 더해 최대 8장을 받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2곳에서 치러진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호 후 투표함에 넣는다.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추가로 받는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단, 세종과 제주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나눠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게 된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서예진 기자 syj@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 투표할 수 있다. 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의 경우, 5석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의석수 순서대로 ‘전국 통일 기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받는다.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원내정당 후보자보다 뒷번호에 배치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뒷번호를 관할 선관위의 추천에 따라 부여받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엑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지나해 11월~올해 4월) 동안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새마을운동,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李 대통령, 새마을운동중앙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며 “정치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적 영역에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할 때 새마을회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임원진을 모아놓고 ‘단체는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게 좋겠다, 소위 말하는 정치 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치적으로 흑여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리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정치인들이 잘 따라다니면 좋아할 거 같은데 사실 무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다니다 보니 지

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값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발국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며 중앙회에 국제 지원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간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론 처음으로 새마을을 방문했는데 오면서 들어보니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처음이라고 하더라”라며 “대한민국 봉사단체 중에 아마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이 아닐까 싶다”고 격려했다.

/서예진 기자



마침내, 역사가 되다



정규시즌 6위의 우승

그 누구도 달지 못했던 0%의 도전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팬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KBL의 최다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날까지
KCC 이지스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고배당주·리츠에 투자, 주택연금 활용 '현금 유동화' 필요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④ '현금흐름' 전략

1인가구 월 적정 생활비 198만원
국민연금 평균 지급 70만원 불과
60세 이상가구 자산 81% '부동산'
생활비 부족한 '가난한 부자' 늘어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도 중요해지고 있다. 유동화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예적금 같은 기존 자산만으로는 30년 가깝게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은퇴 이전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규모는 평균 6억원을 기록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인 3억1500만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의 81.3%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1억 원 안팎에 불과했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가난한 부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 연금으로 역부족... '현금흐름' 만들어야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 국민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한 시민이 고령자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197만6000원이다. 국민 대부분은 은퇴 이후 주된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꼽지만, 올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지급액은 69만8000원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쳐도 104만7700원이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달 93만원 가량의 생활비가 부족하다.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에야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도입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다. 제도 도입이 더뎠던 만큼, 은퇴를 앞둔 50대의 대다수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금흐름'은 은퇴 후 근로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도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들

어오는 활용가능한 수입을 말한다. 과거에는 은행권의 예·적금을 주된 현금흐름 확보 수준으로 꼽았지만, 최근에는 은행권 예·적금 수익률이 3% 이내까지 내리면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은퇴 이후에도 현금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 '노후 재테크' 지속... '자산편중' 유의
예·적금으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기 쉬운 상품으로는 ▲고배당주 ▲리츠(REITs) ▲배당형 ETF(지수추종펀드) 등 배당에 특화된 상품들이 꼽힌다.

고배당주는 배당률이 추가 대비 5%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기대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고,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말 배당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분기·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배당만으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대형 빌딩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간접투자형 상품이다. 주식처럼 거래가 자유로운 편이고,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만큼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형 ETF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별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 투자 난이도가 낮고, 분산투자되는 손실 위험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월배당형 ETF나 배당성장 ETF 등 다양한 특화상품도 출시돼 있어,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이후 투자 시에는 자산편중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펀드를 비롯한 고위험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비슷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면 단기간 내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30% 이상의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라면 노후 재테크에 앞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한 투자용 계좌 상품으로, 주식·ETF 등 투자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며, 의무가입 기간도 없는 만큼 입·출금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부동산·보험 등 '뮤인자산'도 활용

투자에 활용할 금융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나 은행권 역모기지론 등 월 지급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나 목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집값 하락 시에도 기존 지급액을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며, 주택 가격 상승 시에는 대출을 상환해 주택 소유권도 보전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필요한 비용도 늘었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고령자들도 늘었다"라면서 "노년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가 중요해지는 만큼,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각종 제도도 활용해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홍콩 ELS 제재안 '제동'... 과징금 줄어드나

금융위 대형제재, 금감원 보안 요청
은행권 제재 수위, 과징금 조정될 듯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1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보안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전을 상정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

계자는 "안전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하락과 만기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 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처음 4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2조원, 최종 1조4000억원으로 낮추어 제재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홍콩 ELS 손실 배상으로 수조원대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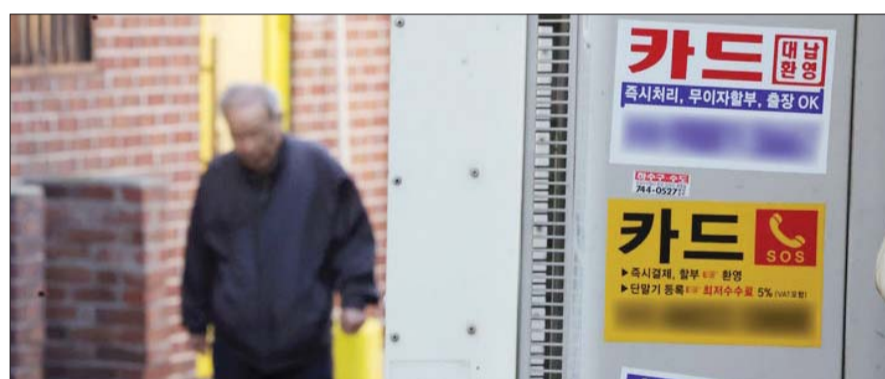
경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안을 요구한 만큼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 ELS 가입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상록수' 이후 장기 연체채권 손질 목소리

카드사·캐피탈사 장기연체 1.5조
"채무, 개인만의 책임은 아닐수도
보호·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최근은행권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의 장기 연체채권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장기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비씨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금액은 4709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카드사들의 총 장기 연체액은 지난 2022년 1242억원, 2023년 1879억원, 2024년 256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4709억원으로 급증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장기 연체액이 1조원

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3464억, 2023년 7956억, 2024년 8222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조195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연체 증가 속도는 기업들의 채권 매각 확대 흐름도 웃돌았다. 2024~2025년만 살펴봐도, 대출 채권매매이익 증가율은 15.4%에 그친 반면 장기 연체액은 약 84% 증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기 연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상록수와 같은 장기 부실채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철 속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경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실화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 위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리 최대 8% 청년미래적금 내달 출시

금융위, 2200만원 내외 목돈 기회

청년미래적금이 연 최대 7~8%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3년 만기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더해지는 구조다. 6월

들어 자금 유입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한다"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22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나유리 기자

“워치·삼성헬스 통해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 EU CoC 서명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러닝기능 기반 헬스케어 사업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연동 방안 준비
차세대 갤럭시 워치 기능 고도화

“러닝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준일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워치·삼성 헬스 활용 러닝 기능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닝을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 보고, 러닝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면 관리와 식단 관리, 심장 건강, 마음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최준일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워치·삼성 헬스 활용 러닝 기능 미디어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 헬스는 식단·운동·수면·복약 등 일상 건강 데이터를 기록·추적하고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수면·운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는 종합 건강 플랫폼이다. 특히 ‘러닝

코치’ 서비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러닝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러닝 코치는 삼성 헬스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기능으로, 개인의 체력 수준에 최적화된 페이스를 제시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러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현장에는 권은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 헬스의 러닝 코치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권 감독은 “실시간 음성 가이드로 오버 페이스를 방지하고 바쁜 일상 속 러너에게 알맞은 스케줄을 제공해 개인에 최적화된 러닝 파트너가 되어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헬스케어 사업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최 상무는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제공 중인 ‘건강 기록 보기’ 기능을 통해 건강검진 기록과 혈압 변화 등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에 의료기관 진료 기록까지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

했다.

올여름 차세대 갤럭시 워치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러닝 기능 고도화 역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상무는 “현재 삼성헬스의 러닝 기능을 고도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검증 기준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러닝 코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운동 종목으로 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상무는 “현재 글로벌 러닝 열풍에 맞춰 러닝 기능 고도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며 “갤럭시 워치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할 수 있고, 코칭 프로그램 역시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화그룹, 美 필리조선소 정상화 ‘구슬땀’

선박인도 일정 지연 등 성장통
핵심기술·생산관리 노하우 이식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업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성장통을 겪고 있다. 주요 선박 인도 일정이 잇따라 밀리고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인수 전부터 누적된 생산·공급망 체계의 구조적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건조 중인 맷슨사의 ‘알로하급’ 컨테이너선 3척의 인도 시점이 당초 2026~2027년에서 최대 2028년 2분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선 ‘미쿠아’호를 비롯한 후속 호선 일정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뒤로 밀린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10억달러 규모의 3200~36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건조 사업이다.

납기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박(NSMV)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도 당초 지난해 6월 완공, 같은 해 말 인도가 목표였으나 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한화오션

정이 밀렸다. 지난해 8월 인수 이후 시험 운항 과정에서 추진 계통 결함이 발생하면서 같은 해 9월 드라이도크에 재투입됐고, 꼬리축과 선미관 베어링 등을 분해·점검한 뒤 수리 작업을 거쳐 올해 3월에야 인도됐다.

윤현규 국립중앙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잡은 인도 지연은 숙련 인력 부족과 건조 공정·공급망 운영 체계가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납기 준수는 조선업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고 지적했다.

실적 지표도 여전히 적자 늪에 빠져

있다. 한화시스템(지분 60%)과 한화오션(지분 40%)이 총 1억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연결 자회사 편입 이후 두 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292억원, 3분기 3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는 과거 누락 원가 반영과 매입가격변분(PPA) 상각비 약 310억원이 반영되며 손실 규모가 879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4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회사 측은 폭설 등 기상 악화를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인수 전

부터 고착화된 손실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특성상 기자재 공급망과 숙련 인력 등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인수 1년 반 만에 정상화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화는 한국 사업장의 기술력과 생산관리 노하우를 이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수 이후 2억달러 이상의 설비 투자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인력 재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저수익 호선 인도가 집중된 2~3분기를 기점으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높은 선종 비중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최근 한화디펜스USA를 통해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으며,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 정상화는 단순한 설비 개선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며 “한국식 생산관리 시스템 이식 속도와 숙련 인력 확보가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com

LG전자, LED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경쟁력 입증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품공급 완료
화재 안전기준 충족 등 안전성 발원

LG전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신청사에 대형 LED 사이니지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주요 공항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안정성과 내구성을 앞세운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항·교통 인프라 중심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지난 4월말 개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에 대형 LED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급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가 공급한 총 115m² 크기의 대형 LED 사이니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마켓 플레이스’에서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LG전자가 이번에 공급한 LED 사이니지는 공장 등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 주로 쓰이는 부품을 적용하고, 화재 발생시 확산을 늦추도록 설계돼 별도의 추가 시공 없이 완성도 높은 안전성을 구

현한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전기·전자 장비 화재 안전 기준인 ‘VdS 6024’와 안전·전자파 적합성 규정인 ‘CE-LVD/EMC’도 충족한다.

또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여행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도 여러 정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높은 가시성과 뛰어난 화질로 광고 영상이나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도 표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뛰어난 품질에 기반한 안정적인 운영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 사이니지. /LG전자

이 가능한 점도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강점이다. LG전자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엑스텔 평가 1위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투자자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체질과 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투자자 평가 전문 기관 엑스텔 인사이츠가 실시한 ‘2026 엑스텔 아시아 이그제큐티브 팀 서베이’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동차·부품 섹터 69개사 중 종합 1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세부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CFO, IR 담당(CIRO), IR 프로그램, ESG, 이사회 부문에서 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CFO 부문에서는 경영진 승인 아래 수립·공개된 자본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신뢰성을 높여 갔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타이어 폭스바겐 ‘라우펜’ 공급

한국타이어는 독일 폭스바겐 신차에 ‘라우펜’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 폭스바겐의 해치백 모델 ‘골프 8’ 부분변경 차량에 2세대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 ‘에스 핏2’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급 대상은 16·18인치 규격의 2세대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 ‘에스 핏2’다.

에스 핏2는 고품질 실리카 컴파운드와 최적화된 트레드 설계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젖은 노면 제동거리를 약 16% 단축했으며, 4개의 직선형 그루브 설계를 통해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차세대 폴리머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일리지 성능도 기존 대비 약 15% 향상시켰다.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그룹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OE 공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K-뷰티’ 화장품, 中企 온라인 수출 3억달러 시대 열었다

중기부, 1분기 온라인 수출 발표
전년비 38.2% 늘어 역대 최고
화장품 비중 65.8% 실적 견인
온라인 수출 中企 2735곳 최다
화장품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컴퓨터·축산가공품 등도 많아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1분기 최초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3억 달러 돌파’를 이끌었다.

화장품 온라인 수출만 1분기에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역시 최하다.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판매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8.2% 늘어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온라인 수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절대적이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1분기 현재 2735개사로 역대 최고치다.

게다가 온라인 총 수출액 가운데 중



세종시 어진동 중소기업센터.

/뉴시스

소기업 비중이 1분기 기준 70%에 달하며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품목은 화장품 외에 의류, 컴퓨터, 축산가공품, 문구 및 완구가 명단에 올랐다. 미국(129억 달러), 중국(38억 달러), 일본(30억 달러), 영국(23억 달러), 네덜란드(19억 달러)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국가다.

화장품만 놓고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온라인 수출이 74.2%나 늘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 수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의 높은 인

기와 지난해 발표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대책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9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한 미국(60.8% ↑) 뿐만 아니라 중국(1900만 달러·90.8% ↑), 영국(1800만 달러·282.8% ↑), 일본(1600만 달러·25.3% ↑), 네덜란드(1500만 달러·133.8% ↑)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 총 수출액의 7.7%를 차지하는 의류는 해외 온라인 소비 확대에 힘입어 23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중국은 유아용 탁발이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 600만

달러(96.4% ↑)를 달성했다.

다만 일본(800만 달러·19.7% ↓), 미국(400만 달러·40.9% ↓)으로의 의류 수출은 주춤했다.

1800만 달러로 온라인 총 수출액의 6.1%를 차지하며 세번째로 많은 컴퓨터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포토프린터(사진출력기)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며 미국(900만 달러), 네덜란드(300만 달러)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돋보였다.

축산가공품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2.1%나 늘어난 1000만 달러 수출 기록을 썼다. K-뷰티 인기와 함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이너뷰티 제품’(먹는 미용, 건강관리 제품)이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기부 심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온라인 시장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정책 지원 효과가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를 넘어 현지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동화일렉트로라이트

中 신야중닝과 장기 계약 전해액 핵심소재 선제 확보

동화기업 계열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중국 육불화인산리튬(LiPF6, 리튬염) 생산 기업인 ‘신야중닝 신재료과기유한공사’와 전략적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

다만 양사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과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따르면 신야중닝은 육불화인산리튬 전문 제조사다. 우수한 원가 경쟁력은 물론 정밀한 공정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5000톤 규모로, 이는 전해액 약 3만 5000톤을 양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계약으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핵심 소재의 선제적 확보와 원가 구조 최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육불화인산리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핵심 원재료의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략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포설선 추가 확보... 시공역량 강화

스칸디 컨넥터호 인수, CLV 2척 체제
해저케이블 7000톤 한 번에 선적
해상풍력·장거리 계통 대응 확대

대한전선이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을 추가 확보하며 해상풍력과 장거리 계통 연계,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해저케이블 시공 체계 강화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인 ‘스칸디 컨넥터’호를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인 팔로스호에 이어 국내에 도입되는 두 번째 해상풍력용 CLV로 한 번에 7000톤의 해저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다.

이번 선박 확보로 대한전선은 두 척의 CLV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특성과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 컨넥터’(Skandi Connector)호.

/대한전선

시공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선박을 투입하는 투트랙 시공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상풍력 내부망과 외부망 시공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거리 계통 연계와 H

VDC 전력망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응 범위도 넓혔다.

스칸디 컨넥터호는 네덜란드 특수선 전문 기업 다멘이 설계한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으로 글로벌 해양 시공·엔지니어링 기업인 노르웨이 DOF Group이 운용해왔다. 현재까지 총 27개 프로젝트에 투입돼 약 1300km의 해저케이블을 포설하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시공 안정성과 운용 역량을 검증했다.

해당 선박은 선박위치정밀제어시스템(DP2)을 갖춰 기상 변화 속에서도 선박 위치를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 대형 캐로셀과 텐서너 등 고사양 포설 설비도 탑재해 외부망과 장거리 계통 연계는 물론 단거리 HVDC 해저케이블 시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수심이 얇은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시

공이 가능한 평저형 선체를 갖춘 점도 특징이다. 수심이 낮고 조류가 강한 서해안 등 국내 연안 환경에 적합하며 자체 동력으로 12노트 속도 운항이 가능해 예인선 견인이 필요한 바지선(CLB)보다 시공 안정성과 작업 효율성이 높다.

대한전선은 자체 선대 운용뿐 아니라 용선 등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CLV 추가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장거리 계통 연계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팔로스호와 스칸디 컨넥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해저케이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인근 야외 전술훈련장에서 진행된 성능시연 행사(Demo Day)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룬트(GRUNT) 다목적무인차량이 참가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연 유럽 UGV 시장 공략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통합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유럽 다목적무인차량(UG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SDA(Black Sea Defense & Aerospace) 2026’ 국제 방산전시회와 연계해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인근 야외 전술훈련장에서 열린 성능 시연 행사(Demo Day)에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루마니아 육군참모총장인 치프리안 마린 중장을 비롯해 미르체아 골로간 국방참모본부 자원담당 차장, 다니엘 포프 육군참모차장 등 루마니아 군 주요 지휘관과 각국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

/원관희 기자 wkh@

모태펀드, 9월에 수익률 첫 공개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전략위 개최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오는 9월께 첫 공개한다.

정부가 모태펀드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마련하면서다.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조원을 출자해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약 1만1700개사에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

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6년 제2차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출자 계획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준희 한국벤처개발협회 부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중앙부처 12곳이 모두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HD현대, 협력사 자재대금 7400억 조기 지급

중동 정세 장기화로 자금 부담 완화

HD현대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상호가 약 568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

마린엔진과 HD현대마린솔루션도 각각 257억원, 1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133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정 주기를 단축하고, 협력사의 긴급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지난달 석유화학 기반 원재료 수급난이 심화하자 정유·석유화학 계열사를 통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협력사에 재료를 신속히 지원한 바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워크데이 “AI는 팀메이트”... 한국 기업 AX 지원 강화

초지능 AI 에이전트 ‘사나’ 공개
기업 정책·보안 체계 등 내재화
‘사나 엔터프라이즈’, 구글 등 연동

“기업 혁신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이 함께 협업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낼 때 이뤄진다. 워크데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래형 업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14일 웨스턴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2026’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월 선임된 허정열 워크데이코리아 지사장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세일즈포스 등 25년간 글로벌 IT 업계를 거친 그는 한국을 혁신과 속도, 산업의 우수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허정열 지사장은 “한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은 단순히 AI 도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 팀메이트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



허정열 워크데이코리아 지사장이 4일 열린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2026’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는 ‘쉐도우 ERP’다. 쉐도우 ERP는 회사의 공식 승인이나 관리 없이 부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비즈니스 규칙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산 마감, 급여 지급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원칙과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공급하는 엔터프라이즈 AI는 단순히 거대언어모델(LLM) 추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허 지사장은 “20년전 ERP(기업자원

관리) 시장은 재무나 급여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볼트온 방식으로 시스템을 덧붙이는 구조였다”며 “워크데이는 처음부터 단일 보안 체계와 코어 구조 안에 기능을 내재화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구조가 차별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데이는 초지능 AI 에이전트 ‘사나 프롬 워크데이’를 공식 소개했다. 데이터와 로직이 분리되지 않도록 AI 에이전트 런타임에 내재화했다. 또 그동안 고객들이 워크데이에 구축한 회

사 내 정책과 규칙이 자산으로 작용해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다시 구축하거나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각 사용자 역할과 권한에 맞춰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볼수 있는 체계도 강점이다.

현장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 지표가 공개됐다. 전 세계 1만10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 중인 워크데이의 고객 유지율은 97%에 달한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65% 이상이 워크데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개별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워크데이 조슈 스벤 워크데이 글로벌 솔루션 마케팅 부사장은 “워크데이는 AI 가드레일과 규제 엔진을 적용해 AI가 권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며 “예를 들어 세일즈 매니저가 AI를 활용하더라도 허용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거버넌스와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사·재무 워크플로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나 셀프서비스 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은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약 20% 향상했고, HR 서비스 요청 건

수가 25% 감소했다.

새롭게 출시한 ‘사나 엔터프라이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션 등과 연동해 기업 업무 역량을 확대했다. 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최신 버전의 문서를 찾아 탐과 공유하고 일정 확인과 회의 예약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에코시스템도 강점이다. 고객은 자사 환경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양방향 데이터 공유도 가능하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기업용 AI 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개념으로는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제시했다.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람과 AI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협업하는 환경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에서는 메타, 세븐일레븐 등 기업들이 워크데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해 계약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등을 바꾸는 등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국방부-SKT, 국방분야 ‘독자 AI’ 적용키로 CJ올리브, 오리온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에이닷 엑스 K1 경량화 모델 제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첫 사례

SK텔레콤이 정부와 ‘K-AI’ 혁신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국방부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과모)를 추진하는 첫 사례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 김명국 SKT 인터스트리얼 AI 본부장,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실증 ▲공개데이터 수집·제공 및 활용 ▲국가 AI 프로젝트와 연계한 GPU 활용 지원 등이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특화 AI 모델을 신속히 개발·실증해 국방 AX가 한걸음도 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고성능 AI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역량과 서비스형 GPU(GPUaaS)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용량을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A.X(에이닷 엑스) K1’ 경량 모델 등이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 정예팀은 국내 최초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에 진출했다.

김명국 SKT 인터스트리얼 AI 본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이 중요한 금융·제조·의료·공공 등 영역에서 AI 활용을 확산해 K-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우리 독자 AI 기술이 국방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정부의 GPU 인프라를 결합해 국방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

데이터 기반 지능형 체계 마련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냈다. 그간 축적해온 제조 AX(AI 전환) 역량을 K-푸드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온은 기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계를 새로 구축해 글로벌 사업 확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통계적 공정 관리(SPC) 기법을 적용한 품질 이상 조기 감지 체계다. 설비와 공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차트와 패턴 분석을 통해 품질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낸다 는 게 골자다. 기준값을 넘었는지 여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만 단순히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의 흐름과 패턴까지 읽어내 사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맞춤형 리포트 기능을 더해 현장 업무 효율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확장성도 이번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향후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글로벌 사업장 확대까지 염두에 둔 확장형 아키텍처를 적용한다.

/최빛나 기자

KT, 클라우드 ‘AI 상담 서비스’ 인증 갱신

2031년까지 안정적 서비스 지원

KT가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공공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KT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인공지능컨택센터(AICC) 솔루션 ‘에이센(A’cen)’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31년까지 공공시장에 안정적인 AI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SAP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다. 국가·공공기관에서 민

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인증하기 위해 시행된다.

KT는 2021년 4월 이 서비스의 SaaS 표준 등급 인증을 처음 취득한 뒤 올해 갱신 심사를 거쳐 CSAP 인증을 연장했다. 이번 갱신으로 5년간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KT는 국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AICC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현재 CSAP 인증을 바탕으로 국세청, 통계청, 광주광역시청 등 60여 개 공공·행정기관 FAQ 안내, 당직·민



KT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인공지능컨택센터 솔루션 ‘에이센’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갱신했다.

원 등 업무에 KT 에이센의 AI 보이스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30여개 대형 금융사를 포함해 400개 이상 기업에 AICC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등본 발급해줘”... 카카오 AI 국민비서 진화

음성 인식 기능 도입

앞으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AI 국민비서’에 음성 인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행정 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공공시설 예약까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카카오톡의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대화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조작이나 텍스트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장벽 없이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 신청·발급과 1200여개의 공공시설 조회·예약을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도록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한국투자증권, WM·연금·IB 전 사업 호조... '1조 클럽' 눈앞

1분기 영업이익 9598억... 85% ↑
김성환 사장, 균형성장 구조 성과 입증
올해 IMA 기반 기업금융 역량 강화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원형사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세 번째 임기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연임 확정 이후 처음 받아든 성적표에서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한층 가까워졌다. 자산관리(WM), 연금, 기업금융(IB) 등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데다 국내 증시 활황이 더해지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599억원, 당기순이익이 78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0%, 75.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조원에 육박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컨센서스였던 영업이익 8220억원과 순이익 6445억원을 각각 약 16.8%, 21.7% 웃돌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 김성환 사장 세번째 임기... 첫 성적표 '합격점'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연임이 확정된 김 사장은 실적으로 경영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 사장은 2022년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자산관리와 연금 사업 확대,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특정 사업 부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수익 구

조가 자리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수익 비중은 위탁매매(BK) 33.3%, 자산관리(WM) 9.0%, 기업금융(IB) 18.6%, 운용(Trading) 39.1%로 집계됐다. 각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위탁매매 부문은 국내 증시 호조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관련 수익이 직전 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

어 MTS '한국투자'에 50건 이상의 기능 개편을 단행하고, JP모건과 국태해통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독립 리서치 서비스를 확대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채권, 발행어음, 수익증권 판매 호조로 판매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71.6% 급증했다.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지난해 말 85조 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4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평균 3조 1000억원의 개인 고객 자금이 유입된 셈이다.

기업금융 부문은 기업공개(IPO)와 주식자본시장(ECM) 부문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운용 및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 역시 금리, 환율, 주식, 채권 등 시장 변수에 대응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호실적에 기여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조직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약 2년간 공석이었던 IB그룹장 자리에 김광옥을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뱅크 상장을 총괄한 IB 전문가로, IPO·인수금융·인수합병(M&A) 부문간 시너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성

환 사장이 직접 겸임하던 IB 총괄 체제를 전담 체제로 전환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 전라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IMA 본격화... '아시아 No.1' 향한 성장 전략 가속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IMA는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과 혁신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리테일 상품 공급 역량과 IB 딜 소싱 역량이 결합된 한국투자증권의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사장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자유롭게 다루고 글로벌 자금이 KIS 플랫폼을 통해 흐르게 해야 한다"며 "AI는 업의 경계를 부수고 새로운 수익의 영토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KB증권, 코스피 목표지수 대폭 상향... "1만 포인트 넘을 것"

주요기업 영업이익 개선 전망 반영
반도체·로봇·전력 등 주도주 제시
"단기 버블붕괴 가능성은 제한적"



KB증권 본사.

KB증권이 14일 'KB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에서 1만 500포인트로 40% 상향 조정했다.

KB증권은 2026년 현재 코스피 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3저 호황'(1986~1989년)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심에는 'AI 투자'에서 비롯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크게 앞선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동시에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해 전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인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91조원에서 2026년 630조원, 2027년 906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했고, 2027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1241조원으로, 1000조원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인프라 시대에 희소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AI 2.0인 에이전틱 AI로 진입한 AI 시장은 클라우드 중심의 서버 AI를 넘어, 온디바이스 AI로 진화되고, 2028년부터는 AI 3.0 시대인 피지컬 AI로 확장되며 훨씬 더 폭 넓은 성장 경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지연 없는 실시간 추론 중요성 부각으로 메모리 반도체 용량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확보는 필수적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붕괴를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 붕괴 ▲금리 급등 등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그널은 단기간(약 3~6개월) 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자산운용 AI반도체TOP2플러스 두달만에 순자산 2조

신한자산운용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2조원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지난 3월 17일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지 50일 만인 지난 4월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3일 2조 903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핵심 가치사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에프엔가이드(FnGuide) AI반도체 TOP2 플러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47% 이상 담고 있고 나머지는 SK스퀘어,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채권혼합 ETF 자산 급증

KB자산운용은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ETF의 순자산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 2조 1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26일 상장 이후 51영업일만으로,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최단기간 2조원 돌파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중 순자산 1위로,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5.81%(에프엔가이드 기준)에 달한다.

이 ETF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고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한다. /신하은 기자

美 반도체 주식 연일 폭등... 닷컴버블 이후 최고 과열국면

SOX 2개월새 64% ↑... RSI 85.5

미국 반도체 주식이 닷컴버블 이후 최고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지난 3월 말 이후 64% 폭등했다. 같은 기간 17% 오른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마이크론(138%)과 AMD(129%)는 100% 이상 뛰었다. 인텔(193%)은 200% 가까이 치솟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지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형성됐던 투자 열기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한 결과다.

모건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스티브 에드워즈 선임 투자전략가는 "반도체와 기술적 스토리가 동시에 강하게 맞물려 열정적인 투자자 기반이 형성됐고 이것이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관적인 투자자들조차 랠리가 식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 주식의 움직임은 1999~2000

년 닷컴버블과 비교되기도 한다.

자산운용사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 터즈 대표는 "어떤 자산에서든 포물선형 급등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지금 시장이 너무 뜸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물어봐야 한다"며 퀵컴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고 전했다.

실제 경고 신호를 내는 기술적 지표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SOX의 주간 상대강도지수(RSI·자산의 과매수·과매도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는 85.5를 기록했다. 2000년 3월 닷컴버블 정점 이후 가장 높은 과매수 수준에 도달했다.

/신하은 기자

울산항, 액체화물 줄며 물동량 감소 일반화물·컨테이너는 ‘증가 흐름’

울산항만공사, 3월 물동량 1532만 t
원유·석유제품 부진 액체화물 축소
수출 호조에 일반화물 3.3% 증가
중·인니 교역늘며 컨테이너 21%↑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울산항을 거치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양이 외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석유류 등의 액체 물동량은 감소했다.

14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항 총 물동량은 1532만 t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액체화물이 줄어든 데 따른 감소다. 공사는 그러나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액체화물은 울산항의 대표 화물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원유 수입 및 석유정제품 수출이 줄었다. 액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감소한 1165만 t이 처리됐다.

일반화물은 전쟁·관세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3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국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힘입어 울산항의 미국 자동차 수출량(18만 t·35.8%↑)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화물이 전년 대비 3.3% 늘어난 323만 t을 기록했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유조선이 이달 상순 울산항만공사의 지원을 받았다. UPA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아시아 권역 내 울산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 증가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중동정세 긴장 고조로 에너지 물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주요 화물 물동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달 상순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국적의 유조선에 ‘선용품’ (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지원했다.

이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에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승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

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봉쇄 이후, 선사 및 현지 네트워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 입항 예정 선박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선용품을 지원받은 한 선원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타국 해상에서 대기가 길어지며 피로도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는데, 울산항만공사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인 울산항 입항 예정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고객만족도 평가 ‘매우우수’ 획득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 성과 인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 이용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개 등급 중 으뜸인 ‘매우우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항만시설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부문의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객의 체감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와 실시간 정보제공 확대, 항만 이용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항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이용 편의성, 대응 신속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정부의 공식 평가 체계다. 공공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고객만족도 평가 등급 체계가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된 것. 보다 엄격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변별력이 커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기준이 높아진 평가 환경 속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항만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추경 활용 농식품 지원 확대 모색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임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대국민 농축산물 할인 등 부문에서 지원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지난달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예산 활용 ▲중점사업 및 신규정책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는 생산·수출, 조직·경영, 정책·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사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 말부터 매주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정과제 및 혁신전략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

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산·수출 분과회의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연계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현황이 제시됐다. 조직·경영 분과에서는 AX(AI 전환) 추진 전략과 AI 활용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책·예산 분과회의 참석자들은 농정이행의 핵심기관인 aT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의 세부 논의내용은 ▲임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시군 순회 밀착홍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환급행사 운영 효율화 ▲현지 당국과 위·모방품 공동 단속 협력 ▲동남아 이슬람권 대체 수출시장 지원 체계화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식품 포장재 매점행위 단속 강화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불안 대응
나프타 원료난에 현장점검 확대
선구매·가수요·매점행위 점검

정부가 식품 포장재 관련 매점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포장재·포장용기의 공급 차질이 빚어질 데 따른 조치다. 또 식품업체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포장재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포장재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나프타 등 석유화학계 원료 수급 불안, 국제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식품 및 외식업계의 포장재 조달 부담이 가중되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

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라면, 과자, 빵, 음료, 즉석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필름류, 용기류, 파우치류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다”며 “포장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확보 상황 및 생산·납품 동향 파악에 나섰다. ▲과도한 선구매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되던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통합·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영세 식품기업도 포장재 수급불안, 납품지연, 물류비 상승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사항은 aT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마사회, 안전관리등급 2년 연속 우수

AI 기반 플랫폼 등 안전 역량 인정

한국마사회가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관련 평가 시작된 이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없다. 2등급이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반사회 실현’ 정책을 발맞춘 AI 연계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기

관장 주도형 안전회의 및 참여형 상시 현장점검 운영 ▲안전 전담조직 및 안전예산 확대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현장 안전보건 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이다.

우희중 마사회장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와 경마장을 찾은 고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선제대응 강화

기후부, 15일부터 5개월간 집중 관리

정부가 녹조에 대한 선제적 예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도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녹조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농·축산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은 ‘기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주적 점검으로 야적



지난해 강원도 소양강 상류에 발생한 녹조. /뉴스

퇴비가 적정 처리(덮개·수거)되도록 관리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시행하고, 1만500가구를 대상으로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나선다. 또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 금천05번 버스 or 도보 7분)



단일화 균열 속 본선 돌입... 서울시교육감 선거 '안갯속'

정근식·윤호상 후보 등록 마쳐
보수, 류수노·조전혁 별도 단일화
진보, 한만중 본후보 등록 예고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이 14일 시작됐지만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선거 구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추가 단일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후보 간 이견이 이어지며 다자 구도 가능성이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후보 선출 이후 법적 공방에 이어 한만중 후보의 본후보 등록까지 예고되면서 단일대오 구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14~15일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 첫날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직후 "오늘은 서울교육의 다음 4년, 우리 학생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출발선에 다시 서는 날"이라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갈등을 넘어 책임으로, 경쟁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로 나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왼쪽), 윤호상 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은 끝났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민주진보 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 서울교육을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며 "더 낮게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더 넓게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상 후보도 후보 등록 직후 서울 교육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는 "서울교육을 바꾸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감 선거인 만큼 상대를 비방하기보다 교육자다운 품격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됐지만, 진영별 단일화 갈등이 이어지면서 판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각 진영 모두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막판

까지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후보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윤호상 후보는 지난 달 보수 성향 시민단체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추진한 단일화 절차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만큼 추가 단일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수노·조전혁 예비후보가 별도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 후보가 완주의사를 유지하고 여기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예비후보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수 진영 내 다자 구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시민사회 주도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온 한만중 후보가 15일 본후보 등록을 예고하면서 다자 구도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정 후보 측은 전날까지 민주진보 진영 통합 원탁회의를 제안하며 통합에 나섰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한만중 후보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성사되지 않았다. 홍제남 예비후보 역시 앞서 진영 대통합을 제안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완주의사를 재확인했다.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13일 정근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경쟁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완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단일화 결과를 존중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일부 경선 참여 후보 측이 제기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항고 기한인 13일 자정까지 별도 항고가 없어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경쟁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원팀의 시간"이라고 경선 참여 후보들의 합류를 요청했지만, 한만중 후보가 본후보 등록 방침을 밝히면서 진보 진영 단일대오 구축은 더 어려워진 모습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런 3.0' 확대... AI 영어·진로교육 강화

서울시, 학습사이트 28개로 넓혀
맞춤형 멘토링 통해 사회 진출 지원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과 진로 콘텐츠를 추가하며 기능을 확대한다.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런 3.0'의 일환으로 AI 기반 영어 학습 콘텐츠와 진로 콘텐츠를 새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콘텐츠는 AI 영어 학습 서비스 '말해보카'와 비즈니스 트렌드·직무역량 관련 강좌 2500여 개를 제

공하는 이라닝 플랫폼 '스튜디오(Studio.io)'다. 이에 따라 서울런 학습사이트는 기존 26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이용자 1명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사이트 수도 기존 진학 4개, 진로 2개 등 최대 6개에서 8개(진학 4개, 진로 4개)로 확대된다. 새로 신설되는 'AI·진로' 카테고리에서는 패스트캠퍼스, 클래스101, 구름에듀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계발' 카테고리에서는 스튜디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 청소년시설, 진로체험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 캠퍼스'를 기존보다 늘려 60개소에서 운영하고, 항공, 반도체·로봇, 뷰티 등 분야 체험 프로

램을 통해 청소년 25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고등학생 이상 회원에게는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한 AI·로봇 프로젝트형 교육과 캠프를 운영한다.

서울런 멘토링은 학습 관리와 정서 지원 중심에서 진로 컨설팅까지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이용자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사회 진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아이들의 잠재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 출발선이 달라

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누적 회원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2025년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상승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이용 가구 비율도 2023년 42.1%에서 2024년 52.4%로 올랐고, 대학 합격 인원은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6학년도 914명으로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화성특례시 수소차 192대 보급 최대 3500만원 지원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대규모 수소차 동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보급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동시에 투입해 시민 참여 기반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과 수소 기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목표로 추진되며,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급 물량은 총 192대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차량 1대당 총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비 2250만원과 시비 1250만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수소차 구매에 대한 시민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디올 뉴 넥쏘'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1세대 또는 1개 법인당 1대씩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2월 4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상시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화성시는 현재 관내 6개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화성시청 서부권, 화성휴게소, 비봉, 송산, 동탄 종합경기타운, 남부권 등 주요 거점에 충전 시설을 구축해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여주도자기축제, 106만명 찾았다

2년 연속 100만명 방문한 메가 축제
전 세대 아우르는 프로그램 마련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가 관람객 106만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올해 축제는 '세종이 열리고, 여주가 빛나는 도자의 시간'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공연, 먹거리를 아우르는 체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소비를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축제는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메가 히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펄스와 블랙이글스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함께 '보는 도자'에서 '체험하는 도자'로의 변화를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린 상환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규모 행사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지역 상생과 글로벌 축제의 도약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김광덕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관람객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예인과 시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 모든 관계자의 협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여주도자기축제에서 김상범 도예가의 모습.

뜻을 전했다. 이어 "여주 도자의 전통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

장도 "106만 2000명의 관람객과 함께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2년 연속 100만 관람객 달성은 시민과 도예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여주(경기)=이숙영 기자 sy1321@

국내 흰 우유 소비 역대최저 유업계 산업구조 재편 시험대

고물가·저출생·수입 등 영향
‘음용유 중심’ 구조 한계 봉착
내달 원유 가격·물량 협상 촉각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가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물가와 저출생, 수입 멸균우유 확산이 동시에 맞물리며 전통적인 ‘음용유 중심’ 산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업계는 오는 6월 시작되는 원유 가격 및 물량 협상을 산업 구조 재편의 분수령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2.9kg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980년대 후반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겉으로는 전체 유제품 소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치즈·버터·발효유 등 가공 유제품과 수입 물량이 포함된 ‘착시’에 가깝다.

현재 국내 원유 쿼터의 약 88.5%는 흰 우유 생산을 위한 ‘음용유’에 배정되어 있다. 반면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공유’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상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쿼터 내 물량을 정상 가격에 의무 매입해야 하지만, 정작 소비 시장에서 흰 우유 수요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유업체가 정상가에 매입한 원유를 음용유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남은 물량은 전지·탈지분유로 전환해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쿼터를 초과하거나 용도가 변경된 원유는 리터(L)당 단 100원의 가치로 평가받

는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정상가를 주고 산 원료가 순식간에 ‘100원짜리’로 전락하며, 분유로 가공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역설적인 구조다.

재고로 쌓이는 국산 분유의 가격 경쟁력 상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산 탈지분유 가격은 kg당 1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kg당 약 3000원대인 수입산 분유와 비교해 3배 이상 비싼 수치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제과·제빵 등 식품업계에서도 국산 분유 사용을 기피하며, 이는 고스란히 유업체의 재고 부담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절벽에 직면한 유업체들은 더 이상 흰 우유에 미래를 걸지 않고 있다. 단백질, 기능성, 식물성, 멸균유, 해외 시장으로 사업 축을 빠르게 옮기는 모습이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아몬드·귀리 등 식물성 음료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동시에 성인 영양식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동남아 등 해외 수요를 공략하고 있으며, 동원F&B는 고단백 RTD 시장을 정조준,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유와

온라인 채널을 결합해 1인 가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유업협동조합은 소화가 잘되는 A2 우유를 전면에 내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중이다. 장기적으로 원유를 A2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 ‘원유 가격·물량 협상’이 예정되어 이목이 쏠린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격 인상 여부’가 아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음용유·가공유 비중 조정, 즉 원유 쿼터 재설계가 본질이라는 평가다. 협상의 성패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기능성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지 못하면, 유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유업계의 손익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낙농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성웰스토리, 급식 헬스케어 솔루션 강화

여름철 대비 건강식 신메뉴 15종 출시

삼성웰스토리가 여름 시즌을 대비해 영양 설계를 정밀화한 건강식 신메뉴 1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의 임직원 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식단을 통해 단체급식 시장 내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신메뉴는 여름철 선호도가 높은 면 요리와 보양식을 컨셉으로 기획됐다. 주요 라인업은 체중 관리에 집중한 ‘칼로리 500’ (끼니당 500kcal 이하)과 근력 강화를 돕는 ‘프로틴 25’ (단백질 25g 이상 함유)로 구분된다. 대표 메뉴로는 파래 실곤약과 닭가슴살을 활용한 ‘초계 파래실곤약냉면’, 훈제오리와 고사리를

조합한 ‘오리고사리페스토라이스’ 등이 포함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외에도 혈관 건강을 위한 저포화지방산과 혈압 관리에 용이한 저염식 등 약 600여 종의 건강식 메뉴를 운영 중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24년부터 구내식당 이용객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 코칭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본격화해왔다. 향후에도 단순 급식 제공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맛과 영양을 균형 있게 갖춘 건강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구내식당이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헬스케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농심켈로그, 그레놀라 ‘일상·기능’ 이원화

“취향·상황 최적화 선택지 제공”

농심켈로그는 ‘픽셀 라이프(Pixel Life)’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세밀하게 분석, ‘저당(Low Sugar)’과 ‘제로슈거(Zero Sugar)’로 선택지를 세분화한 맞춤형 그레놀라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켈로그는 당 저감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도 ‘일상형’과 ‘기능형’으로 제품군을 이원화했다.

‘저당 그레놀라’는 당 부담을 낮추되 통곡물의 고소한 맛과 식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주로 바쁜 아침 식사나 일상적인 간식 등 ‘데일리 루틴’을 중시하는



저당 그레놀라·프로틴 그레놀라. /농심켈로그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다. 반면, ‘프로틴 제로슈거 그레놀라’는 설탕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기능성 제품으로, 운동 전후나 집중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한 ‘특수 목적형’ 상황에 최적화했다. /신원선 기자

식품업계, 저당·기능성 ‘패밀리 루틴템’ 붐몰

풀무원다는 체온 활동 유산균 강화
SPC삼립 소스 등 저당 라인업 확대
대상다이브스 영양보충 식품 제안



저당 소스 /SPC삼립



Nuts&땅콩버터. /대상다이브스

가정의 달인 5월 선물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식품업계가 ‘일상의 루틴’에 초점을 맞춘 제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건강기능식품 세트 중심이던 소비가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매일 식탁에서 함께 즐기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패밀리 루틴템’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고물가 속 실속형 가치 소비가 확산되면서 한 번 쓰고 끝나는 선물보다 매일 활용 가능한 저당·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루틴 아이템으로는 발효유가 꼽힌다. 풀무원다는 ‘액티비아 부스트샷’은 체온 활동 유산균을 강화한 제품으로 100ml 소용량 설계를 통해 휴대성과 음용 편의성을 높였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돼 신뢰도를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고품질 부모와 바쁜 자녀 세대가 함께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한 병의 습관’으로 제안되고 있다.

외식 및 베이커리 업계 역시 ‘맛있는 건강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샐러드 전문 브랜드 샐러디는 미쉐린 1스타 셰프와 협업한 워프스타 메뉴를 선보이며 한 끼 건강식 선택지를 확대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두레주르는 ‘슬로 TLJ’ 라인업을 강화해 저당 설계 케이크와 호밀 사워도우 등 당 부담을 낮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빵과 디저트 역시 ‘건강한 빵식’으로 재해석되는 분위기다.

주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소스와 스프레드류도 변화하고 있다. SPC삼립의 샐러드 브랜드 ‘피그인더가든’은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활용한 저당 소스·드레싱 제품군을 확대했다. 굴소스, 데리야끼 소스 등 당 함량이 높다고

인식되던 제품을 저당화해 식단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대상다이브스의 복음자리는 채소를 블렌딩한 ‘Nuts&땅콩버터’ 제품을 선보이며 고단백·고식이섬유 스프레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 잼이나 버터를 넘어 ‘영양 보충 식품’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 세대는 속이 편한 식품을 찾고, MZ세대는 즐거운 식단 관리를 추구하면서 ‘저당·기능성 일상식’이 공통분모로 자리 잡았다”며 “가정의 달을 계기로 일회성 선물보다 반복 구매로 이어지는 루틴 소비가 확대되면서 식품업계의 마케팅 역시 ‘구독’과 ‘일상 침투’ 전략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삼성카드로 ‘제타패스’ 누리세요”

롯데마트 온·오프라인 혜택 한장에

롯데마트가 ‘롯데마트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마트 삼성카드’는 대형마트와 SSM, 온라인몰 혜택을 카드 한 장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롯데마트와 슈퍼 매장 결제 시 월 최대 3만원 한도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몰 ‘롯데마트 제타’ 이용 시에도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을 지원해 온·오프라인 전반의 장보기 부담을 낮

쳤다.

카드 최초로 ‘제타패스’ 혜택도 탑재했다. ‘제타패스’는 롯데마트 제타에서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일상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함께 담았다. 음식점·주유·통신·의료 업종에서 5% 할인을 제공하며, 영화 관람 시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 모두 2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S샵, 자체 언더웨어 브랜드 ‘UBGS’ 론칭

S/S시즌 ‘컴포트 라인’ 선보

GS샵이 편안함과 실용성,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자체 언더웨어 브랜드 ‘UBGS’를 론칭하고, 26년 S/S 시즌 ‘컴포트 라인’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UBGS는 ▲선택의 자유 ▲체감하는 편안함 ▲믿을 수 있는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핵심 가치로 한 브랜드다.

UBGS는 고객이 자신의 체형에 맞게 상·하의 사이즈를 각각 선택할 수 있

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원단을 열고 압력으로 접착하는 ‘프리컷 퓨징(Free Cut Fusing)’ 방식을 적용해 봉제선을 최소화하고,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매끈한 핏을 구현했다. 모든 상품은 스킨-메이지-블랙 등 스킨톤 원단에 속건과 접촉 냉감 기능을 더해 쾌적함을 높였다.

이번 UBGS 첫 상품은 GS샵 상반기 최대 행사 ‘판타지이스’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16일 선공개된다. /김서현 기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뜬다... K-바이오, 새 먹거리 부상

아리바이오 中 푸싱과 7조대 계약
큐라클 CU71 특허로 후발 추격
SK바이오팜 스타트업 협업 확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인류의 난제로 꼽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행보가 활발하다.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중기전 신약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입증하며 K-바이오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아리바이오는 지난 13일 중국 푸싱제약과 경유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에 대해 약 7조원(4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판권 및 독점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약 900억원(600만 달러)을 우선 수령하며 이후 옵션 체결 시 추가되는 약 1200억원(8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100억원(1억4000만 달러) 수준의 선금금을 단계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허가 및 상업화 시 대규모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하다.

AR1001은 계열 내 최초 신약 후보물질이다. 기존 단일 표적 치료제와 차별



K신약, 세계 뇌질환 시장을 공략한다.

/제미니이 생성 이미지

화된 것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응집체 제거, 비정상 타우 단백질 억제, 신경세포 보호, 뇌혈류 개선 등의 약물 효과를 동시에 갖췄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8개 국가, 영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톱라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아리바이오는 "임상 3상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계약을 맺음으로써 성공 가능성과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게

됐다"며 "AR1001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도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매섭다.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퇴행성 뇌질환 신약 후보물질 'CU71'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IP)을 강화해 약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CU71은 뇌 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혈액뇌장벽(BBB)을 안정화하는

데 쓰인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혈관성 치매, 파킨슨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전 임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기존 치료제인 도네페질 대비 우수한 인지 기능 개선, 장기 기억력 회복 등을 입증했다.

대형 제약사인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을 넘어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신경면역 및 뇌 환경 개선 분야에서 차세대 혁신 신약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SK바이오팜은 최근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 유망 기업인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를 선정해 협력에 착수했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는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자가포식 활성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이에 SK바이오팜은 국산 신약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임상 노하우를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기술수출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전략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역시 국내 파이프라인 역시 상업적 가치를 지녔음을 증명하며 K바이오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보령

2세대 항암제 발매 백혈병 치료 강화

보령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사킨정(성분명: 다사티닙)'을 발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사킨정은 2세대 표적항암제다. 암세포 성장을 유발하는 BCR-ABL 융합 단백질인 타이로신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또 국내 최초로 다사티닙 성분을 처방했다. 20mg, 50mg, 70mg, 80mg, 100mg 등 총 5개 용량으로 구성됐고 국내에서 유일한 '70mg' 용량도 출시됐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적용해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백혈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령은 혈액암 환자의 질환 진행 단계에 맞춘 포괄적 치료 선택지를 구축하는 등 혈액암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다사킨의 경우, 1세대 표적항암제 글리마(성분명: 이매티닙)에 이어 2세대 치료제로 선보여진 것으로 1세대 치료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다사킨을 통해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K뷰티 성공 공식 웰니스로 넓힌다

올리브베러 1호점 개점 100일 맞아
560여 브랜드·1만3000개 상품 입점

CJ올리브영이 웰니스 전용 매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1월 광화문에 문을 연 올리브베러 1호점이 개점 100일을 맞았다고 14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올리브베러를 통해 웰니스 제품군을 '잘 먹기', '잘 채우기' 등으로 세분화해 선보인다. 제품 기능에 따라, 소비 목적에 따라 맞춤형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전면에 배치했다. 작은 병이나 포에 농축된 웰니



올리브베러 광화문점 외부 전경. /CJ올리브영

스샷 등을 날개 단위로 내놓는 등 고객들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부

담 없이 시도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올리브베러 매장 매출 상위 30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을 웰니스샷과 구미 제품이 차지했다. 웰니스 상품을 새롭게 경험한 올리브영 회원 역시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웰니스 브랜드도 적극 발굴했다. 국내 인디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560여 개의 웰니스 브랜드와 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품을 새롭게 입점시켰다.

자체 구축한 브랜드로는 '올더베러'를 공개했다. 구미, 올리브오일, 워터 스틱 등 50여 종의 다채로운 상품을 실

속 있는 가격으로 구성해 고객의 초기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올더베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평균 3~4개의 타 브랜드를 추가로 구매하며 웰니스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객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올리브베러 광화문점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은 지난 2월 첫 주 7%에서 4월 말 50%로 커졌다. 특히 외국인 고객이 구매한 품목에서 상위 5개 제품이 리쥘란, 비비랩, 닛팅베럴 등 모두 국내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비온드X할인광'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비온드, 20주년 기획전 샴푸·바디워시 '반값'

LG생활건강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에서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할인광'과 협업한 것으로, 브랜드 대표 제품에 특별가를 적용한다.

또 베스트셀러인 보라 샴푸, 살 냄새 바디워시 등을 1리터(L) 수준의 대용량으로 내놓는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정수리 냄새와 두피 유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디펜스 II 샴푸·트리트먼트, 마스크 향과 보습 기능을 갖춘 딥 모이스처 II 바디워시·바디로션, 민감 피부를 위한 아토피 리퍼어 올인원 워시·로션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 모두 식물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비온드는 피부에 편안함을 전달하는 성분을 엄선하고 있다"며 "반값 이상의 할인과 넉넉한 용량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비온드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쇼핑 경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K-더마 글로벌 거점 마련

청담 본사에 브랜드 체험 공간 마련

동국제약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동국제약은 서울 강남 청담에 위치한 본사에서 '센텔리안24' 글로벌 쇼룸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이번 쇼룸은 해외 바이어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센텔리안24 브랜드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부터 기미 관리를 위한 '멜라캡처' 제품군, 멀티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 20명 규모의 공용 회의실,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운영한다. 지난 13일에도 글로벌 인플루언서 30인을 초청해 웨데이 클래스,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센텔리안24 글로벌 쇼룸은 K더마 브랜드의 성과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신제품 호조에 목표 초과

英·프랑스·이탈리아 점유율 80%대

셀트리온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램시마를 비롯한 주요 제품군의 처방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목표 실적의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셀트리온은 14일 아이큐비아(IQVIA) 기준, 램시마 제품군은 2025년 4분기 기준 유럽에서 70%의 합산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주요 5개국(EU5)을 중심으로 성과가 두드러졌다. 영국에서는 램시마 제품군이 83%,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82%,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SC도 성장했다. 독일에서는 50%의 점유율로 과반을 넘어섰고, 프랑스에서는 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램시마SC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 배경에는 경쟁 제품에서 램시마로 변경한 뒤 램시마SC로 전환하는 듀얼 포뮬레이션(Dual Formulation) 효과가 뚜렷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램시마 제품군 간의 시너지에 기반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살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중·고교생부터 외국인까지... LG, 'AI 인재 확보' 속도

'LG 테크 콘퍼런스 2026' 개최 영재·과학·유학생 100명 초청

LG가 미래 기술 인재 확보 전선을 중·고교생부터 외국인 연구인력까지 전방위로 넓혔다. 단순한 채용 홍보를 넘어, 이공계 인재와의 조기 접점을 늘리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LG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이공계 인재 초청 행사 'LG 테크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 2012년 시작된 이 행사는 LG의 R&D 비전과 기술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인재와 교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초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국내 석·박사 R&D 인재 중심에서 벗어나 영재·과학 학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 2026 행사장 모습. /LG

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처음으로 행사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8개 영재·과학고에서 학생 100명을 초청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기업이 고등학생 단계에서 '미래 인재 후보

군'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삼성·SK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최근 강화되는 흐름으로, LG도 이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첫발을 뗐다. LG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9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했다. 참가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 각 계열사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선발했다. AI·반도체·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내 이공계 인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부회장)와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LG기술협회의장)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 AI연구원 등 주요 계

열사 최고경영진과 기술 리더 71명이 참석했다.

LG사이언스파크 6개 건물, 9개 강연장에서는 기술 리더 31명이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테크 세션'이 동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로봇, 모빌리티, 전지, 소재, 통신 등 관심 분야별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올해 신설된 'One LG' 세션은 이번 행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기술 협업 사례를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는 ▲버티컬팜(LG전자·LG CNS·팜한농) ▲AI 기반 화장품 효능 소재 연구(LG생활건강·LG AI연구원) ▲AI 데이터센터(AIDC) 전략 및 솔루션(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 유플러스·LG CNS) 등이 소개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에피스홀딩스 글로벌 ESG 평가 'AA' 획득

바이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글로벌 투자정보제공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하 'MSC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리더 그룹으로 분류되는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분할 상장 이후 공개한 각종 경영 성과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ESG 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ESG 평가에 처음으로 참여해, MSCI로부터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게 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NH농협은행-금융보안원, 보안 강화 MOU

NH농협은행은 금융보안원과 은행권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술 검증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NH농협타워에서 김주식 NH농협은행 시데이터부문 부행장(왼쪽)과 오중호 금융보안원 상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GC녹십자, 머크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

GC녹십자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공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서울 GC녹십자 운영 총괄 부문장(왼쪽)과 김명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비즈니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소진공, 정책 알릴 'SNS 기자단'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 홍보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3일 대전 로컬 창업타운에서 진행한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에서 인태연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이 기자단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오투기, 제주 소상공인과 상생 나서

오투기가 운영하는 복합 식문화 공간 '롤리폴리 꼬꼬'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 롤리폴리 꼬꼬 세화리 협업 전시 현장.

/오투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트너스데이 개최

협력사 제도·지원 방안 공유 인공지능 전환 적용 사례 나눈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협력사와 품질 혁신, 디지털 전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하며 상생협력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협력사 경쟁력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26년 두산에너지빌리티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파트너스데이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협력사의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영 현황과 품질문화 활동인 'QualityLIFE'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14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2026 파트너스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능전환(AI)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관리 체계, 중소기업 AI 도입 사례와 지원사업 등 협력사들이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했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 사례 공유에 이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ESG 우수협력사상, 2026년 베스트 파트너상 등이 수여됐다.

/원관희 기자 wkh@

삼표그룹, 임원 포럼 열고 AI 전략 공유

AI 중심 조직 혁신 추진

삼표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광화문 센터 포인트에서 그룹 및 계열사 임원진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임원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임원진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삼표그룹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담겼다.

올해 첫 포럼의 강연은 'AI는 삼표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 제조업의 리더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주제로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맡았다. 김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유사 산업군의 AI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기술적 이해를 넘어 삼표그룹 각 계열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AI 적용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표그룹은 전 산업군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학습과 발 빠른 대응만이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리더십 포럼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에게 AI 최신 기술 동향과 관련된 식견을 갖추고 비즈니스 방향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부터 진행해온 '삼표그룹 임원 리더십 포럼'은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정세 및 삼표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매년 가장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한다. 포럼은 연 4회 정례화해 운영 중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관리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도중 △교육인재개발실장 이동연 △의료혁신실장 이순태 △대의협력실장 이승미 △정보화실장 이호영 △국제사업실장 권우일 △의학역사문화원장 박상민 △진료지원실장 송재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정근화 △헬스케어A

연구원장 이형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이승표 △강남센터 부원장 최수연 △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장 박지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김연숙 △보훈약제과장 강준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 임명 △상임감사 정혜선

신한은행, 조선업 공급망 금융지원 협약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도와

신한은행은 삼성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조선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조선업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78억원과 35억원 등 213억원을 무보에 공동 출연한다. 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삼성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특별보증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보증료 전액 지원을 함께 받아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



(오른쪽부터)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조선업 수출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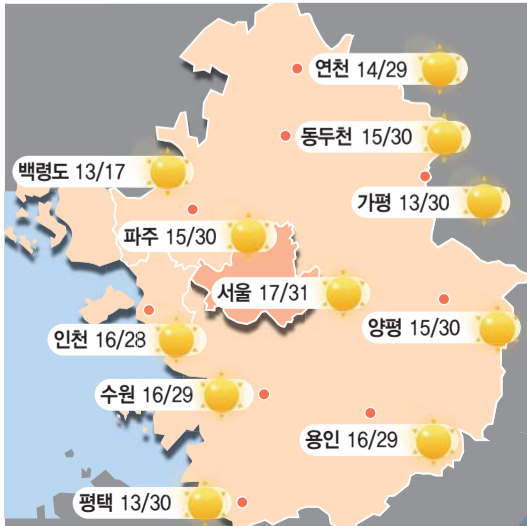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질 / 19:34

5월 15일 (금)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17~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속는 사람들의 심리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사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한순간 방심하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선의의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은 몇 가지 인지편향이 작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진실편향과 낙관편향이다. 진실편향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특별한 의심이 없으면 일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낙관편향이란 나쁜 일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심리다.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특히 마음씨가 착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일수록 함정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 범죄 심리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꾼은 동정심을 유발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고아로 힘들게 컸어요.”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같은 거짓 신세 한탄으로 피해자의 측은지심을 자극한다.

실제로 몇 년 전 큰 충격을 준 ‘어급니

야빠’ 사건이 있었다. 희소병을 앓는 딸을 둔 아버지가 거리 캠페인과 방송에 나와 치료비 도움을 호소하자 수많은 국민이 수십억 원을 모아 주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살인 범죄까지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드러났다.

진실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미덕이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전이 걸린 중요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그 선의가 자신의 약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부탁이나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하기를 어려워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순응 경향성 또는 동조 성향으로 설명한다. 사기범은 작은 부탁을 가장한 요구를 슬쩍 던져 놓고 착한 피해자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걸려들기를 노린다.

실제로 방송인 정준하 씨는 과거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의 부탁을 받고 돈

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 친구는 “여행 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히 200만원만 빌려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정준하 씨는 고민이 되었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준 뒤 곧바로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평소 호의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부탁이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사기 수법에 더 취약해진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전혀 미안한 일도 무례한 일도 아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합리적으로 거절했을 때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친근데 이 정도도 못 들어줘?”라거나 “넌 착한 사람이잖아” 같은 말로 압박하면서 선을 넘는 부탁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호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기범에게는 애초에 미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쓰일 수 있지만 결국 큰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편이 낫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렵겠다”, “저도 여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처럼 완곡하면서도 단호한 표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착한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는 소중하지만 자기 보호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 (음 3월 2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평화로운 중에 항상 함정이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건강이 최고입니다. 72년생 잘해주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세요. 84년생 이성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49년생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6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73년생 실행에 옮기면 큰 성과가 있습니다. 85년생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50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하세요. 62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74년생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86년생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의 대하세요.



51년생 타산지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63년생 각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구설수를 항상 조심하세요. 64년생 흥한 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76년생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88년생 친한 친구와 갈등이 우려됩니다.



53년생 대형 사고가 우려되니 조심하세요. 65년생 주변인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고 있습니다. 89년생 고집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세요.



54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윗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7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90년생 너무 어렵다고 혼자 미리 걱정 마세요.



55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좋습니다. 67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79년생 욕심은 실패의 지름길인 것을 명심하세요. 91년생 휴식을 취하며 일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56년생 아래사람들과 관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세요. 68년생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80년생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아주 무난한 하루가 됩니다.



57년생 신경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69년생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81년생 조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93년생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58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0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을 쉽게 내갑니다. 82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에게 행운의 색입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약속과 보험금 지급



기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보험은 약속이다. 보험료를 내는 순간의 약속이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다.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생명보험 약속의 날’을 열고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전 생보사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바꾸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품에 팔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필요한 선언이다. 보험산업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마주한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보험은 가입 순간보다 청구 순간에 평가받는다.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각인되는 때도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때다.

문제는 숫자가 선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 민원은 48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 늘었다. 보험업권 전체로 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보호를 말하기 가장 좋은 시점에, 소비

자 불만도 함께 커진 셈이다. 물론 보험금 민원이 모두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닌 청구도 있고, 의료비·진단비·간병보험 처럼 판단이 복잡한 영역도 있다. 보험금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보험사의 책임이다. 보험금은 무조건 빨리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어렵다”고 설명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는 “가입할 때는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기억한다. 이 간극이 반복되면 보험은 약속이 아니라 분쟁이 된다.

/gh47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양심 불량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석가모니는 말씀했다. 인간이 고귀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만 최대한이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익명성이 높아지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는 당연히 여기지만, 더불어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는 우리 모두 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뉴스를 보다 보니,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한 30대 남성은 석 달 동안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180번 넘게 사용하다 적발돼 운임의 서른 배에 이르는 778만 원을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 같은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서울 지하철 기준 연평균 5만 3천여 건으로 징수액은 7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의 차원으로 발급되는 어머니나 아버지 등 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이 80%로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무임권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고육을 포함해 보 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고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제도가 몰 양심으로 새고 있다.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의도인데 제도를 활용하여 부정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자신이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이는 생각일 뿐이다. 이해한다 해도 공짜가 없는 것은 우주의 진리다. 보는 눈이 없었지만 마음이 CCTV다.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자신의 무의식에는 도장처럼 찍힌다. 양심불량한 그의 영혼은 쉼 곳이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4		1		
3		1				5	9	6
4						3	8	7
				3	4			
			2	8				
		6	7					
9	6	3						1
8	1	5				9		4
		7		9		8		5

7	5	1		6	3			4
			4		5			6
	9	4						
4			2			3		
		8				1		
		5			6			9
						4	7	
	1		3	4				
8		5	9		7	3	6	

9	9	8	6	1	2	7	2	
4	2	6	2	9	6	1	8	
1	9	2	8	7	9	6	6	
8	7	2	9	6	9	6	1	
8	1	9	8	9	2	7	6	2
6	2	7	1	8	8	2	9	9
2	8	8	9	1	9	6	2	7
9	6	9	7	2	1	8	8	8
2	8	1	6	7	9	8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와인의 개성, 당신의 취향... 한국 사로잡은 '벨레 그로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5

“당신의 취향을 따르라(Go With Your Palette).”

와인은 정답이란게 없다. 전문가가 좋다고 하지만 내 입맛엔 안 맞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어도 나에게 인생 와인이 될 수 있다. 와인은 절대적으로 '개취(개인의 취향)' 존중의 영역이다. 와인 메이킹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 같은 지역이라도 개성 넘치는 다양한 와인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코퍼케인의 존 로페즈(John Lopez) 양조 총괄 디렉터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벨레그로스와 퀼트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코퍼케인의 존 로페즈(John Lopez) 양조 총괄 디렉터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벨레그로스와 퀼트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뜨일 터. 조 와그너가 설립해 이들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곳이 바로 코퍼케인이다. 조 와그너는 나파밸리 '케이머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척 와그너의 아들이다. 19세부터 케이머스에서 와인 메이킹에 참여했으며, 2001년 벨레 그로스를 통해 자신만의 와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코퍼케인(CopperCane)을 직역하면

구릿빛 줄기다. 이름 자체가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녹색인 포도나무 줄기는 과실이 완전히 익었을 때 구리색을 띠게 된다. 이때가 수확할 시점이다. 로페즈는 “코퍼케인의 와인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수확 시점을 결정하는 이 방식 덕분에 모든 와인이 공통된 스타일과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퍼케인 와인이라고 하면 잘 익은 과



(왼쪽부터)벨레 그로스 라스 알투라스 피노 누아, 벨레 그로스 데리만 피노누아. /안상미 기자

실의 깊은 풍미를 떠올리면 된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풍만한 피노 누아, 벨레 그로스다. 캘리포니아 주요 해안 산지에서 싱글 빈야드 와인으로 만든다. '벨레 그로스 데리만 피노누아'는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러시아 리버밸리의 해안 인접 지역이다. 바닷바람과 안개로 포도는 천천히 오래 익어간다. 덕분에 충분히 익은 붉은 과실미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산도가 인상적이다.

'벨레 그로스 라스 알투라스 피노 누아'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몬테레이 카운티의 산타 루치아 하이랜드에서도 고지대에서 만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바람의 영향도 많아 작은 포도알이 껍질은 두껍고 과실은 응축된다. 데리만보다 검은 과실 느낌에 구조감과 질감이 더해진다.

퀼트는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스타일을 선보인다. 역시 이름 자체가 모든 말을 하고 있다. 각각 9개 구역에 걸친 포도밭의 고유의 개성을 퀼트(Quilt)처럼 엮어내겠다는 의도다.

'퀼트 나파 밸리 샤르도네'는 샤르도네가 보여줄 수 있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포도밭이 나파 밸리지만 소노마 카운티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과실과 산도의 균형감이 좋다. 특히 이날 선보인 빈티지는 2017년으로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밝은 산도를 지닌 전형적인 나파 밸리 샤르도네의 모습을 보여줬다.

코퍼케인 수출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이 1위다. 한국인들의 과실 중심인 직관적인 취향에 딱 맞아떨어진 데다 좋은 산도와 미네랄감으로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덕분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시작가 20억 '대동여지도' 채색 필사본 경매 나온다

서울옥션, 오는 28일 5월 경매에 출품 독도 표기... 390cm×685cm 대형 규모 황실 역사적 사료, 근현대미술 작품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채색 필사본이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시작가는 20억 원이다.

14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5월 경매인 '제192회 미술 품 경매'에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총 145점, 낮은 추정가 기준 약 103억 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번에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간행한 신유분을 바탕으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이다. 총 22첩의 분첩 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구성돼 휴대가 가능하며, 모두 펼치면 가로 약 390cm, 세로 약 685cm에 달하는 대형 규모를 이룬다.

특히 목판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산(于山)' 표기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서울옥션은 이를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표기로 해석하며 "제작 당시의 주체적 지리 인식을 보여주는 학술적 완결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지도는 도별 채색과 주요 거점의 붉은 색 표기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고, 산맥과 물길, 10리마다 찍힌 방점 도로망 등



대동여지도.

을 정교하게 시각화했다. 18세기 백리척(百里尺) 축척법 전통을 계승한 조선 후기 지도 제작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평가다. 서문과 도성도 등 부록까지 완비됐으며, 1957년 소장 기록 등 전래 경위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다.

조선 후기의 공간 감각은 여기서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국가를 읽는 시선이 된다. 산줄기는 혈맥처럼 이어지고, 물길은 시대의 호흡처럼 흐른다. 종이 위에 접힌 조선의 풍경은 정보이자 세계관이었다.

경매에는 역사적 사료도 함께 나온다. 대한제국 마지막 상공으로 알려진 한희순 상공의 생애와 황실 문화를 보여주는 '한희순 상공 관련 사진·자료 일괄', 일제강점기 천도교 청년운동의 흔적을 담은 '천도교청년당 관련 사진 7점 일괄' 등이다.

근현대미술 부문에서는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새 주인을 찾는다. 추정가 5억~10억 원에 나온 김환기의 1971년작 '7-III-71'은 뉴욕 시기 '전면 점화' 양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종이 작업이다.

유영국의 1978년작 'Work'도 시작가 10억 원에 출품된다. 강렬한 원색의 과감한 사용은 산과 하늘, 대지를 삼각형과 사각형의 색면으로 원숙한 경지에도 달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동시대 미술 섹션에는 이우환의 'Dialogue' (7억~12억 원), 데미안 허스트의 'Beautiful, Camp, Sinbad Lozenge Painting' (추정가 1억2000만~3억5000만 원), 1996년 생 작가 이목하의 '크로마키 블루' (1억~1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경매 출품작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뉴스스

식민지 타이완서 피어난 여성들의 이야기

대만 최초로 인터넷서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양창쯔(본명 양튀츠)가 부커상 후보작 '1938 타이완 여행기'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배경의 역사소설 '꽃 피는 시절'(마티스블루)을 내놨다. 양창쯔 작가는 첫 장편소설 '꽃 피는 시절'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1920년대 타이완섬으로 돌아가 타이완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꽃 피는 시절 양창쯔/마티스블루

또한 여성들의 일상과 감정, 욕망

세밀하고 유려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꼬집어냈다. '1938 타이완 여행기'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소설은 타임슬립이라는 장르적 장치로 통해 식민지와 계급, 젠더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이 소설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작가가 밝혔듯이 "소녀와 소녀가 각별한

벗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찰음식 국가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진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1주년을 맞아 현대적 의미와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찰음식 역사와 철학은 물론, 생명존중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사진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지난해 5월 19일, 오랜 시간 사찰 공동체 내에서 전승된 온수행이자 생활문화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사업단은 지정 후 지난 1년간 사찰음식의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약 1만 6000명이 방문했고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프로그램에는 96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91명이 배출됐다.



▲시진핑 “공존의 길 가야”...트럼프 “미중관계 좋아질 것”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속 위안화 3년3개월 만에 최고치...1달러=6.7859위안 /사진 뉴스스

▲미 정보기관 “中, 이란 전쟁 최대 수혜국...美 패권 흔들”
▲미국무 “中 호르무즈에 이해관계...이란 태도 바꾸도록 설득해야”

▲국제에너지기구(IEA) “호르무즈 열려도 연말까지 원유 공급 부족”
▲나토, 7월 정상회의에 바레인·UAE 등 걸프 4개국 공식 초청



흰 우유 소비 '최저' 유업계 구조 재편 분수령 나



Life

K-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료제 뜬다 L2



일상에 스며든 자연... 생명력 피어나는 초록 정원 걸어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

인천 송림동 재개발 1321가구 대단지 원도심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 풍부

지형 활용 입체적인 구조로 조경 설계 멸종위기 해제 식물, 육생 비오톱 조성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 친화적 공간

테마별로 조성한 아기자기 중앙 정원 별자리 패턴 활용한 금속 큐브 조형물 동물과 자연 테마로 꾸민 단지 놀이터



단지 위에서 내려다본 중앙 조경시설 전경.▶

지하철 1호선 도화역에서 버스로 10분 가량 달리자 재능대학교 건너편으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들어선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이다. 두산건설이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이 있는 송림동은 한때 노후 주거지와 공업지역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지만, 최근 재개발 사업이 잇따르며 원도심 풍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원도심에 위치해 편의시설과 학군, 병원 등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

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인천 백병원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다. 단지 바로 앞의 복합문화 공간 '송림골 꿈드림센터'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도 양호하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좋다. 향후 부평연안부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이 연결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정문에는 가로로 길게 뻗은 대형 문주가 눈에 띈다. 게이트 안쪽에는 조경수와 산책 공간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일부 구간은 언덕 지형의 높이를 활용해 입체적인 구조로 설계했다. 동 출입구는 짙은 회색과 밝은 회색 석재를 교차해 목직한 분위기를 냈다. 화려한 장식보다 기둥의 단단함을 부각한 실용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생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자연 친화 메시지다. 단순히 보기 좋은 녹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개념 자체를 조경 테마로 끌어들었다. 대표적인 공간이 '멸종위기 해제종 주제 정원'이다. 안내판에는 개나시·미선나무·부채꽃 등 멸종위기에서 해제된 식물 11종의 특징이 하나하나 설명돼 있다. 아파트 조경이라기보다 작은 생태 학습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멸종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식물을 통해 자연의 위대한 회복력과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두산건설의 메시지를 전한다.

정원의 디딤석 산책로는 작은 숲길처럼 나 있다. 자갈과 들꽃류 식재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거친 질감을 살렸다. 정원 옆에는 '육생 비오톱' 공간이 마련됐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 돌무더기, 장작더미를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돋보인다.

단지 중앙 조경은 작은 정원 여러 군데를 모아둔 마을처럼 꾸며져 있다. 커뮤니티 시설 '센트럴 하우스'는 얇고 길게 뻗은 흰색 지붕선이 파도처럼 휘어져 곡선형의 주변 조경과 조화를 이룬다. 전면 유리창을 넓게 사용해 개방감을 강조했다.

곡선형 디딤석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꿈을 표현한 조형물과 알록달록한 색의 벤치가 눈에 띈다. 노란색과 주황색의 포인트 색이 분위기를 환기한다. 다양한 색깔의 식재 역시 무겁고 딱딱해보일 수 있는 회색톤 단지에 밝은 에너지와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한다.

위에서 내려다본 중앙 조경은 하나의 정원형 광장처럼 펼쳐진다. 커뮤니티 시설과 조형물, 산책로, 수목이 둥근 동선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X자 형태로 교차하는 산책길은 자연의 흐름을 천천히 느끼며 걷도록 유

도한다.

단지 내 잔디광장에는 별자리 형태의 금속 큐브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영원한 빛-판도라의 상자'라는 이름의 작품이다. 빛과 별자리 패턴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한다. 인간의 욕망과 불균형,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큐브 구조 안에 담았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위브(Club We've)'와 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돼 있다. 저층 필로티 구조 아래에는 야외 운동시설과 자전거 보관 공간을 배치했다. 천장과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덕분에 비나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지 내 놀이터도 동물과 자연을 테마로 꾸며졌다. 유니폼을 입은 토끼 형태의 놀이시설은 높은 곳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미끄럼틀과 원색 계열로 테마파크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 친구 우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놀이터는 아이들이 숲속 탐험을 하는 듯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변 수목과 어우러지며 자연 친화 콘셉트를 강조했다. 악어를 형상화한 어린이 놀이터는 커다란 악어의 몸과 아자수, 파도 무늬를 표현해 정글을 연상시킨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떤 삶의 환경을 지향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빛과 별자리 패턴 활용한 금속 큐브 조형물 '영원한 빛-판도라의 상자'. 2 악어를 형상화한 어린이 놀이터. 3 멸종위기 해제종 주제 정원 산책로. /성채리 인턴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리그 0골' 계속...LAFC, '정상빈 45분' 세인트루이스에 1-2 패
▲EPL 맨시티, 팰리스에 3-0 대승...아스널과 우승 경쟁 이어가 /사진 뉴시스

▲셀틱 양현준, 머더웰전서 시즌 2호 도움...팀은 3-2 승리
▲'데뷔 첫 SV' LG 손주영 "마무리투수 책임감 있어야...재대로 해보겠다"

▲'남도 기차둘레길' 뜬다...문체부·5개 지방정부·코레일 맞손
▲우리 동네로 찾아온 국보·보물...진천·영암·의령 '국보순회전'